

LBS 시장활성화 선봉 LBS산업협의회

단말기 · 솔루션 · 콘텐츠 업계 협력조율 ... 국제 표준화 및 해외진출 박차



표준화 개발 박차

LBS산업협의회는 국토지리, 교통, 환경, 재난관리 등의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과 무선 통신, 솔루션 개발, 표준, 보안 및 콘텐츠 사업자간 공동협력 여건을 조성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KAIT 김춘석 본부장은 "현재 회원사는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해 유무선 제조 업체와 보안, 콘텐츠 등 LBS 적용이 가능한 관련 업체와 산·학·연 등을 망라하고 있다"면서 "대정부 건의, 공동사업추진 및 공동마케팅 등을 전개해 회원사간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LBS산업협의회 구성은 정책제도, 기술개발, 서비스 등 3개의 분과와 함께 업계간 의견 조율 및 홍보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이뤄졌다. 각 분과는 업무일정 및 사업방향을 분과별로 추진 중인데 표준화분과가 가장 먼저 워킹 그룹별로 사업계획을 구축했고, 서비스분과가 그 뒤를 이었으며, 정책분과도 표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서비스분과는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를 통해 SKT·KTF·LGT·한국위치정보 등 주요 LBS사업자의 서비스 전

략을 소개하고 LBS 시장 확대를 위한 시범서비스 및 연구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시적인 회원사 소집,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사업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제도분과는 지난 7월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전국순회설명회(서울, 대전, 광주, 전주, 부산, 제주)를 개최한데 이어 허가 및 신고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중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단에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LBS 산업 제도 개선을 주도한다는 방침.

이밖에 기술개발분과는 ETRI에서 개발한 '개방형 LBS 표준 플랫폼' 홍보를 통해 플랫폼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며, LBS 서비스 공통 API 표준화, MPC(Mobile Positioning Center) 표준 개발 추진 및 이동사의 연동 모듈 개발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중이다.

LBS산업협의회는 또한 산하에 LBS표준화포럼을 운영, 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전시회, 세미나 등의 홍보 활동과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국제기관과 교류 협력, 기타 LBS산업

지난 2003년 설립된 LBS산업협회(회장 조정남 www.lbskorea.or.kr)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형 국가 표준 개발을 목표로 LBS 분야별 국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 | 최광열 기자(모바일타임스)



조정남 LBS산업협회 회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춘석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형 국가 표준 개발을 목표로 LBS 분야별 국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LBS표준화포럼에서 개발한 13개의 표준이 TTA단체표

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올해 6개의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BS표준화포럼을 통해 단체표준으로 확정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에 홍보하고 국제 표준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규 표준을 개발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복안.

회원사를 포함해 관련 업계와의 상호연계를 강조하는 LBS 산업협회의회는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연구소)의 입회비를 면제하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개방적인 협력 시스템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해외시장 선점에 주력

전문 리서치 기관인 오범은 LBS 시장이 매년 200~300%의 성장률을 보여, 2006년 미국 25억 달러, 유럽 40억 달러, 한국 4억 달러 등 전세계적으로 팽창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이 정부주도로 군사용에서 텔레매틱스,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2002년에 들어서야 GPS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위치 측위 및 LBS 미들웨어 플랫폼은 전적으로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김춘석 본부장은 “LBS 시장에서 실제 매출발생이 다소 더뎠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산업과 다양한 가치사슬(Value-Chain)을 갖는 LBS산

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창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는 위치정보법 제정이 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유비쿼터스 시대를 겨냥한 고정밀 측위기술 개발 및 지상파 LBS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BS 산업이 긴급구조서비스 등 생활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향후 국가 인프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춘석 본부장은 “협의회는 LBS뿐만 아니라 텔레매틱스, RFID, 와이브로 등 신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 중”이라며 “향후 접목 가능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사업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BS산업협회의회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도개선을 비롯해 LBS 단말응용 콘텐츠 공유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다방면에 걸쳐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관리, 교통, 환경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 다음 민간부문에 보급시켜 중장기적으로 국가기간 산업을 인프라화 시킨다는 것.

김춘석 본부장은 “LBS 산업이 산업전반에서 고른 성장을 이끌려면 기초기술은 천천히 해서라도 다져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플랫폼, 솔루션 등은 업계의 왕성한 참여가 이뤄지는데 비해 측위기술 등과 같은 기반기술은 철저히 외면당해 기술편식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선진국의 LBS시장 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 시찰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LBS 관련 산업의 총체적인 동향 및 발전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업 목표들이 예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07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협의회 본연의 비영리성을 토대로 균형 있는 서비스 육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산업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